

# 외식 트렌드 '가심비' '빅블러' '쑈외식' '한식당'

## 농식품부·aT, 2018년 키워드 선정

내년 외식업계에서는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게 아니라 일상의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해소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여인홍)는 19일 오는 2018년 외식 트렌드 키워드를 선정했다.

소비자 3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외식 소비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전문가 20인과 인터뷰를 통해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도출된 내년 외식 트렌드 키워드에는 '가심비'와 '빅블러', '반외식 확산', '한식 단품의 진화' 등 4가지가 꼽혔다.

우선 최근 소비트렌드로 꼽히는 가격 대비 성능 '가심비'를 넘어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는 '가심비'가 외식업계의 새 트렌드로 떠오를 전망이다.

외식을 통해 식사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일상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음식의 비주얼이나, 플레이팅 기법, 점포의 인테리어

가심비 -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 추구

빅블러 - 자동화 확산 업종간 경계 모호

쑈외식 - 혼밥과 간편식 꾸준히 발달

한식당 - 한가지 메인 메뉴 전문 판매

등을 통해 차별화된 매력을 가진 식당이나 음식점들이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광주시 동구 동명동 일대 등 옛 추억과 향수를 자극하는 골목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를 창업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점포에 무인결제 시스템 등 무인화·자동화가 점차 확산하면서 업종 간 경계도 점차 모호해지는 현상인 '빅블러'(Big Blur)가 외식업계에도 확산할 것으로 전망됐다. 스마트폰 배달앱과 전자결제 수단 등이 발달하면서 온·오프라인 서비스가 융합돼 업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나타낼 것이라는 의미다.

역시 내년에도 '혼밥' 열풍은 여전히 이어지면서 반(半)

외식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혼밥과 간편식이 꾸준히 발달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즉석식품이나 도시락 등 간편식을 구입해 집에서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세트메뉴와 반찬, 요리상품에서 포장은 물론, 디저트 등 기존 배달이 되지 않았던 음식도 배달이 가능해지는 등 고급화 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반찬 수는 줄이면서 한 가지 메인메뉴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한식당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측했다. 돼지국밥이나 평양냉면, 콩나물국밥 등 지방의 대표적인 음식 전문점이 수도권에서 인기를 끄는 것을 사례를 들 수 있다.

한편, 올해 외식소비행태의 조사결과 월평균 외식 빈도는 14.8회로 지난해(평균 15회) 비해 조금 줄어든 반면 혼자 외식하는 빈도는 4.1회로 지난해 3.7회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외식비는 평균 30만3000원가량으로 지난해 약 31만원보다 다소 감소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사학연금공단은 19일 경기도 안양 소재 아동양육시설 '안양의 집'을 방문해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평창동계올림픽 티켓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학연금공단 제공>

## 사학연금공단, 소외계층 아이들 후원금

봉사활동도 펼쳐 ...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응원

사학연금공단(이사장 이종훈)은 19일 경기도 안양시 소재 아동양육시설 '안양의 집'에서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학연금 봉사단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설에 후원금을 지원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작은 규모이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응원하기 위해 고객과 소외계층이 함께하는 현시 경기관람 및 봉사활동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최근 aT 화훼공판장에서 개최된 '잘 피고 오래가는 꽃 콘테스트'에서 방문객들이 출품작들을 살펴보고 있다. <aT 제공>

## 잘 피고 오래가는 꽃 콘테스트

aT, 장미 등 절화 68점 출품 ... 로즈피아 대상 수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여인홍)는 19일 최근 aT 화훼공판장에서 '잘 피고 오래가는 꽃 콘테스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테스트는 화훼농가의 품질개선 노력을 통해 소비자에게 국산꽃의 우수성을 알려 꽃 생활화 활동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aT 화훼공판장을 이용하는 (사)한국절화협회 및 (사)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 소속농가로부터 장미 등 68점의 절화가 출

품됐다. 심사결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되는 대상에는 장미를 출품한 농업회사법인 (주) 로즈피아(대표이사 정화영)가 선정됐으며, 상금 200만원의 최우수상에는 라넌클러스를 출품한 전병욱 농가가 선정됐다. 또 상금 100만원의 우수상은 양운길(거베라), 김정남(장미), 박선정(백합) 농가가 각각 상을 받았다. 이번 콘테스트는 국산 절화의 개화 상태·

수명 등 상품성 유지기간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확일로부터 1주일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심사·평가가 진행됐다.

심사·평가 결과 채화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음에도 대다수 출품작에서 뚜렷한 상품성 변화가 없어 절화의 수명유지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심정근 aT 화훼사업센터장은 "이번 콘테스트가 국산 절화의 상품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화훼산업 종사자 간 소통·회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국내산 화훼의 품질 향상과 꽃 소비 생활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2017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전력거래소, 지역발전 부문 수상

빛가람혁신도시 전력거래소가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했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유상희)는 최근 국회 VIP룸에서 열린 '제12회 2017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지역발전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2번째 개최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은 한국서비스 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발전에 공헌한 숨은 유공자들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사회발전에 공헌해 대한민국 사회공헌 문화 확산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이날 지역발전 부문을 수상한 전력거래소는 기관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수혜자중심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홍길 전력거래소 기획본부장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지난 2014년 10월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다문화가정 지원, 자매결연마를 돕기, 착한 전기 나눔 캠페인, 찾아가는 취업설명회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24면 발행·호보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한전KPS 열린혁신 추진단 발족식 이후 서명식 상무(왼쪽 8번째)와 각 분과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KPS 제공>

## 한전KPS, 열린혁신 추진단 발대식

한전KPS(사장 정의현)는 지난 18일 빛가람혁신도시 본사 혁신홀에서 단장 직무대행을 맡은 서명석 상무를 비롯해 각 분과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혁신 추진단 발대식'을 가졌다.

한전KPS 열린혁신 추진단은 '열린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등 대통령 국정철학을 구현하고,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열린혁신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사회혁신 분야에서 시민주도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등 2건의 과

제와 기관혁신 분야에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지원 등 3건의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한전KPS 관계자는 "이번 열린혁신 추진단 운영을 통해 정부가 제시하는 비전과 회사 특성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열린혁신 추진전략을 마련해 공기업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투자가치 좋은 물건, 회사 사정상 금매합니다. 주인직매 H. 010-3605-5000

###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답 203평 147-4, 11번지-대 231평 147-15번지-전 83평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매매 - 9억 3000만원 (평당 180만원)

###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8억 5000만 (평당 60만원)

### 콘도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 협의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15층, 15평
- 전망좋은, 주거겸 사무실
- 내부울수리, 즉시 입주가능
- 매매 - 3,600만원

### 공산면, 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1층,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함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5200만원(조정가)

###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팻섬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타 부동산 교환가
- 매매 - 협의

### 거문도, 펜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61-1
- 토지 49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코너, 전망좋은
- 매매 - 2500만원

###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 6층중 4층 전체, 210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300만원 임대 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